국민희망, 불교미래 典範 '자비순례'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자비순례 법어



當機一句千古輝(당기일구천고휘)
臨危不變是丈夫(임위불변시장부)
기틀에 다다른 일구는 천고에 빛남이요,
위태로움에 당하여 변치 아니함은
이것을 방부라 칭(稱)함이라.
기틀에 합당한 일구(一句)는 종사가(宗師家)의 안목(眼目)을 갖춘 이라야,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이 염출한다.
종사가들이 상봉(相逢)하여 진리의 세계를 거량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와 일거일동은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갯불보다도 빠르다.
이렇게 빠르고 밝은 눈을 갖추신 분이야말로 천고(千古)에 선지식이 됨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에서 탄신(誕辰)하시고 길에서 대오견성 하시고 길에서 설법(說法)하시다가 길에서 열반(涅槃)에 드셨습니다.
2600년 전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現前)함이라.
이에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생사를 요달(了達)할 수 있도록 가일층 정진하기 바라노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간절한 마음으로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호흡 호흡마다 혼신(渾身)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됨이라.
이때는 사물을 보아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는 상태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 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땅에 이르게 되고, 천 칠백 공안이 한 꼬챙이에 다 꿰어버리게 되어, 누가 어떤 법문을 물어와도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는 법이로다.
이것이 호왈(號曰) 대오(大悟)견성(見性)이고, 확철대오(廓撤大悟)이니,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친견하여 바르게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함이라.
〈중략〉
향상(向上)이 일로(一路)를 알아야만 당기일구(當機一句)의 기틀을 갖추어 천불만조사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
금일 3 · 7일 노상에서 씨름하는 모든 대중은 알겠는가?
보고 또 보라!

테마로 본 만행결사 자비순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월 7일 입재하여 27일 회향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는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또 선보일 예정이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해 열리는 순례인 만큼 국민들에게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결사대중이 10월 7일 순례의 첫발을 디뎠다. 애가사를 수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통일하여 착용한 스님들이 눈길을 끈다. 사진=박재완 기자

THEME 1 코로나 방역 철저

자비순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청규 및 생활수칙 하에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발생을 막기 위해 순례하는 이들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걷기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아침 출발 전과 점심공양, 저녁 도착 후 총 3차례 걸쳐 발열체크를 하고 각각의 온도를 기재하기로 했다. 체온 기준도 37.5도인 정부방역 지침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37도 이상시 의료팀이 즉각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행선 중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1인 1텐트를 사용한다. 이들 텐트는 매일 소독이 진행된다. 또 대중운집을 막기 위해 공양도 도시락으로 해결키로 했다.

박기련 지원단장은 "7대 수칙을 정함으로써 대중 모임 중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지키기로 했다. 순례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전범을 보이기 위해 더욱 수칙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THEME 2 복장 · 행동수칙 통일

불교 중흥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복장과 행동 등도 수칙을 정해 통일했다. 자비순례는 새벽 3시 30분 기상하고 9시 취침하는 일과를 정하고 행선 출발과 회향은 죽비 3타 신호로, 순례에서는 '자비순례' 문구가 새겨진 모자만 착용함을 수칙으로 지킨다. 청규에서는 행선시 묵언을 기본으로 스님들은 승복과 대가사를 수하도록 했으며, 휴식시에는 낮은 소리로만 대화하고 제공받은 공양물을 남기지 말도록 했다.

순례가 걷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닌 수행의 일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행선시에는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108염주를 수지, 염불 등 각자의 수행도 진행하게 했다.

THEME 3 500km 장정 특별운영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숙영지와 순례코스가 일정했던 태화산 예비순례와 달리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대구부터 서울까지 500여 km의 대장정인 만큼 순례를 지원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결사대중은 순례단과 지원단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공주 태화산 순례때보다 많은 82명이 신청하여 비구스님 4개조, 비구니스님과 우바이, 우바새 각 1개조씩 7개 조로 이뤄졌다. 지원단은 공양팀, 운영팀, 상황팀, 자원봉사팀, 의료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텐트에서의 장기간 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국대 의료원에서 4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의료팀을 구성해 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THEME 4 지역사찰과 사회 참여

불자들의 기도정진이 함께 이뤄졌던 천막결사와 같이 이번 자비순례에도 지역사찰과 지역민들의 일일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첫날에도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나경원 前 국회의원 등의 일일참여가 진행됐다.

도시락 공양의 경우 각 순례지마다 사찰들의 보시가 이어지고 있다. 첫날 순례에서도 대구 보현사를 비롯한 대구지역 사찰들이 뜻을 모았다. 신라불교초전지에서는 구미지역민들이 순례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동참도 이어질 전망이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순례의 정진은 곧 수행이며, 이번 자비순례는 특히 행선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다. 수행 진작을 통한 불교 중흥 주춧돌이 되도록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비순례 사부대중 인터뷰

"국민 불교호감 높이는 기회로"

진오 스님



자비의 마라토너로 유명한 진오 스님은 이번 자비순례 전체일정에 참여한다. 스님은 이번 걷기가 마라톤과 달리 대중이 함께할 수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수행이란 결국 대중과 소통하며 회향하는 데서 의미를 지닌다"며 "마라톤을 할 때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었지만 걷는 것은 보다 많은 대중, 특히 스님들이 함께 할 수 있어 하나의 수행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 내적으로 행선이 하나의 수행법이 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 불우이웃을 위한 마라톤처럼 이번 자비순례도 보다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 이번 자비순례는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호감도를 높일 좋은 기회"라고 기대를 밝혔다.

"간절함 만큼 중흥 이뤄질 것"

묘수 스님



남양주 봉선사에서 온 묘수 스님은 이번 순례에 도반 스님 3명과 함께 참여했다. 태화산 순례에서부터 도반모임을 구성해 순례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은 "다큐 '아홉스님' 을 보면서 스님들 사이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있었다. 승가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수행도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의무감과 원력이 생겨났다"며 "그런 마음에서 스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도만행결사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스님은 "인도만행은 스님이라면 한번은 해봐야 할 정진이라고 생각했다. 쉽게 가지 못하는 만큼 간절함은 더 커질 것"이라며 "순수하게 정진하는 불자들의 이런 마음이 국민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는 결국 수행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한다"며 밝게 웃었다.

"결사 완성에 마음 모아달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지난 천막결사 재가자 일일수행부터 봉은사 새벽정진에 이어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까지 참여하고 있다. 대학 총장으로 업무로 인해 21일 전체 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틈이 날때마다 순례에 동참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첫 순례를 마치고 "자승 前 총무원장 스님 이하 대중들이 꼭 마지막까지 성료하여 결사정신을 널리 알리길 간절히 바란다"며 "또 이런 결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결사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결사는 말 그대로 대중들이 함께 해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순례에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고무적이다"며 "동국가족들도 적극적으로 결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동참하는 사부대중들이 마지막까지 힘든 역경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불자들 동참에 기뻐"

윤정은 대불련 회장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직접 해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봉은사에서 매주 목요일 진행된 새벽정진부터 순례에 동참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걷는 것과 대학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윤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 해 뜨기 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사색을 하며 걷는 습관을 갖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면 하나의 수행이 되고 생활의 나침반이 된다"며 "여기에 이번 순례에는 함께 수행하는 이들이 같이 걷기 때문에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템플스테이와 순례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생겼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

한가정의 가장이 앞장서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그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1990년 3월 법형제회 발족에 즈음하여 **대행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형제회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TEL. 010-5250-7040